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협력체계 연구 방안

유승현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근의 건강증진 연구 및 사업에서는 사회 각계의 특성과 입장을 고려한 사회 생태학의 다층적 접근,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단체와 프로그램 간의 협력, 참여 위주의 협력 과정, 보건 연구 및 사업에 대한 시스템적 사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된다. 특히 상호지지적 협력체계는 참여형 연구의 근본 요건이고, 이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사업에서 특이사항이 아닌 일반사항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양한 건강문제에 접근하는 널리 유용한 전략이 되었다. 이러한 지역사회 보건 협력체계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서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연구들이 다양한 건강증진 효과를 발표하였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연구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사회 보건 협력체계는 일반적으로 형성, 실행, 유지, 정착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개발되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필수 구성요소에는 ‘명확한 목표와 사명,’ ‘리더십,’ ‘실천 위주의 보건기획력,’ ‘지속성 확보’ 등의 지역사회 역량 요인들이 해당된다. 현재까지의 지역사회 협력체계 진단도구들은 척도형 위주로 협력체계 필수 구성요소의 발달 정도와 효과를 평가하도록 기획되어 있다. 최근 미국의 사례 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 보건 협력체계 개발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와 성취방법에 대한 협력기관 간의 의견조정과 의사결정, 시간이 소요되는 협력체계 개발 과정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과 조정자의 역할이 핵심 역량으로 파악되었다. 특성이 서로 다른 협력체계가 모인 다중 협력체계의 경우 특히 의견조정과 리더십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협력체계 안에서 종적, 횡적으로 일관성 있는 개발 및 수행과정이 필요했다. 본 발표에서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한 지역사회 보건 협력체계 개발 단계와 구성요소들을 검토해보고 참여형 협력체계 사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협력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